

함께 연구합시다

국소마취제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전남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이 중 호

문 : 국소마취제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치과에서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는 para-aminobenzoic acid ester type과 amide type이 있다. 현재는 amide type의 Lidocaine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들 local anesthesia의 adverse reaction으로는 대개가 syncope나 hyperventilation을 나타내는 psychogenic reaction, drug overdose에 의한 toxic reaction, idiosyncratic reaction 그리고 allergy이다. 이중 국소마취제에 의한 부작용의 대부분은 needle insertion시의 sensation이나 needle에 대한 공포심에서 야기되는 psychogenic reaction들이다. Psychogenic reaction은 presyncopal sign으로 pallor, sweating, tachycardia로 시작되어 hypotension, bradycardia, pupillary dilation, loss of consciousness로 이어진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환자를 편안히 위치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회복이 되며 premedication으로 환자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Overdose, intravascular inject에 의한 toxic reaction의 confused, talkative, apprehensive, exited되는데 이는 slow inject & aspiration에 의해 방지 될 수 있다. 국소마취제에 대한 allergy 중 lidocaine allergy는 극히 드물지만 환자가 그러한 과거력이나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Drug reaction은 천식, atopic disease환자에서 빈도가 높고 국소마취제의 skin test을 시행한다. 이때 혈관 수축제가 함유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후에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사를 실시한다. 국소마취 후 urticaria, 다른 부위의 종창, wheezing, angioedema, anaphylaxis, contact dermatitis가 야기되면 allergic reaction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치료가 행해져야 한다. Anaphylactic reaction으로 판단되면 1:1000 epinephrine이 주사되고 기도를 확보하면서 산소 공급을 하고 증상에 따라 Benadryl, aminophylline이 주사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환자의 생징후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이 동반되어야 한다. 국소마취제 주입후 나타나는 adverse reaction의 증상에 따른 진단이 중요하다.